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28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 증시 강보합 마감..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

- 미국 증시 소폭 상승: 다우, 나스닥, S&P500 일제히 최고치 경신
- 미국-이란 협상 기대감에 국제유가 급락
-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매파적' 동결 전망

Summary

미국증시 강보합: 다우 +0.36%, 나스닥 +0.07%

5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36% 상승한 50,644.2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이 0.02% 상승한 7,520.3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07% 상승한 26,674.735에 거래를 마침.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은 굉장히 미미했지만 그럼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02% 소폭 하락 마감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4.23% 하락한 16.29에 마감.

(다우 +0.36%, 나스닥 +0.07%, S&P500 +0.02%, 러셀2000 -0.02%)

미국-이란 협상 관전

시장이 상승했지만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던건 반도체주 차익 매물 출회의 영향 이외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임. 이날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과 이란이 협의 중인 양해각서(MOU)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 방송이 공개한 MOU 초안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 이란은 그에 대한 대가로 MOU 체결 이후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

다만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협상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으며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반납하더라도 제재가 풀리는건 아니라고 말함.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나아가 이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향후 이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확인.

다만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 참석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란과의 전쟁을 매듭 짓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 낙관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킴.

국제유가 급락..금·은도 하락세

국제유가는 이날 5% 이상 크게 하락해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에서 멀어지고 WTI도 한 달 만에 90달러 선을 하회하는 등 미국-이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반영하는 모습. 다만 금값은 유가의 등락과 무관하게 전쟁 발발 이후 대체로 내내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날 금 선물 가격은 장 중 낙폭을 확대해 두 달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금과 함께 은값도 동반 하락 중. 앞서 올해 4분기 은값이 온스당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에 대해 "향후 수 개월 내 금값이 랠리를 보인다면 은값도 다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경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특히 은 가격이 높아지면서 핵심 산업에서 은 사용량이 줄어들고 나아가 대체재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은값 상승을 제한한다고 설명.

이어지는 연준 인사 매파적 발언

최근 닐 카세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 혹은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소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도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동향을 지켜본 뒤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 쿡 이사는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장기간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격과 임금 설정 행태에 고착화될 위험에 대해 특히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함. 그는 나아가 "예상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제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임. "위험 관리 관점에서 현재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믿는다"고 말했지만 연준의 위험은 여전히 더 높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함.

이날 유가 급락과 함께 국채금리는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적으로 30년물 금리는 주시하고 있는 5%선을 여전히 상회.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매파적' 동결?

오늘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함. 시장 전문가들은 신현송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함. 무엇보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종전 협상 타결과 확전, 양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번 금리 동결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힘.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점, 1,500원대를 넘나드는 달러-원 환율, 여전한 집값 불안 등을 감안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즉 금리를 일단 동결하되 '매파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공개할 예정. 이번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경상 흑자 규모 역시 기존 대비 상향할 것으로 예상.

특징종목

반도체주 차익실현

전거래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주는 대체로 차익실현 매물에 숨 고르기 양상을 보임. UBS가 목표주가를 세 배 가량 상향 조정하며 전 거래일 급등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63%)가 이날도 추가 상승해 시가총액 1조달러 굳히기에 들어갔고 샌디크스(+0.03%) 역시 바클레이즈가 '메모리 업계의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샌디스크 같은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자의견을 상향한 가운데 강보합 마감. 샌디스크와 함께 시게이트(+2.94%), 웨스턴 디지털(+1.13%) 등 스토리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다만 AMD(-1.66%), 퀄컴(-6.20%), 인텔(-1.42%), NXP 세미컨덕터스(-1.03%), 온 세미컨덕터(-1.6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2.29%), 램 리서치(-1.16%), KLA(2.69%) 등 이외 반도체 장비,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관련주 등은 대체로 약세. 엔비디아(-1.05%)도 하락세를 지속함.

한편 마블 테크놀로지(-4.59%)는 마감 이후 기대를 웃도는 전분기 실적과 현재 진행 분기,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반등.

전일 5% 이상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날 1.36% 하락했고 VanEck 반도체 ETF(SMH)(-1.10%)도 약세 전환. iShares 반도체ETF(SOXX)(-1.07%)도 하락 마감. 다만 마이크론의 상승세에 힘입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Rounhill 메모리ETF(DRAM)(+0.36%)는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함.

빅테크: 메타 플랫폼스 상승폭 확대

이날은 반도체주가 약세권에 머무르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를 중심으로 빅테크가 대체로 상승해 지수를 떠받침. 블룸버그는 메타 플랫폼스(+3.74%)가 AI 챗봇에 대한 유료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라고 보도. 월 7.99달러를 지불하면 '메타 원 플러스'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하거나 심화된 추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고도화된 서비스인 '메타 원 프리미엄'을 월 19.99달러에 구독하면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메타가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를 상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라고 전함. 막대한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며 마감을 앞두고 주가가 급 반등했으며 이로써 닷새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이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전자상거래용 AI 에이전트 '알렉사 포 쇼핑'의 설계 구조와 초기 코드, 운영 노하우를 묶은 '에이전트형 쇼핑 어시스턴트' 솔루션을 공개한 강누데 아마존(+3.74%)이 비교적 강하게 상승했으며 애플(+0.82%)은 오는 6월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구글 제미나이 기반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AI 시리'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며 이 전략이 정체된 아이폰 교체 주기를 자극해 대규모 실적 호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 사상 최고가를 경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테슬라(+1.56%)도 5거래일 연속 상승.

국제유가 하락: 항공/여행주↑, 에너지주↓

WTI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하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항공/크루즈/여행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주는 약세.

델타 에어라인스(+3.04%),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6.33%),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3.31%), 카니발(+4.75%),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 홀딩스(+6.14%), 익스피디아(+1.61%), 힐튼 월드와이드(+3.99%) 등 항공/크루즈/여행주가 대체로 상승.

반면 엑슨 모빌(-1.27%), 셰브론(-1.25%), 코노코 필립스(-1.24%), 옥시덴털 페트롤리엄(-0.99%), EOG 리소시스(-1.40%) 등 에너지주는 약세.

사이버 보안주 약세: 지스케일러 급락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지스케일러(-31.52%)를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주가 약세. 지스케일러는 전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에도 현재 진행 분기 순이익 전망과 연간 잉여현금흐름 마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을 하회해 전일 시간이 거래에서부터 급락.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속에 JP 모건, RBC, 파이퍼 샌들러, 에버코어 ISI, TD 코웬, 씨티, 바클레이즈, 미즈호, 도이치뱅크, 웨드부시 등 주요 기관이 목표가 하향 조정에 나섬. 팰로 앨토 네트웍스(-3.23%), 크라우드스트라이크(-3.90%), 포티넷(-4.50%), 옥타(-4.59%), 베리사인(-3.65%) 등.

여타 소프트웨어주도 마이크로소프트(-0.81%)와 오라클(-1.09%), 어도비(-0.94%) 등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체로 약세.

세일스포스(-0.88%)는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주당 순이익(EPS) 기준 1년 전에 비해 50% 급증한 좋은 실적이었지만 현재 진행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해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하락.

다만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회사 스노우플레이크(-1.32%)가 시간외 거래에서 30% 이상 급등. 회사가 공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나아가 연간 매출 전망을 상향했음. 스라이언 로빈스 스노우플레이크 CFO는 “AI가 핵심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스노우플레이크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함. 한편 스토우플레이크는 AI 인프라 관련 AWS와 6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기업 고객을 위한 보다 안전한 AI 연결성 제공을 위해 기업용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플랫폼인 나토마를 인수한다고 밝힘.

이외 특징주

테무의 모회사인 중국 핀둬둬(-10.38%)가 전분기 실적이 기대를 밑돈 가운데 급락. 중국의 소비 수요 둔화와 높은 투자 지출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내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기대감 속에 우주 항공 관련주 강세는 이어짐. 미국 우주군과

9천만 달러 규모의 위성 계약을 체결한 로켓 랩(+4.91%)이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인튜이티브 머신스(+15.72%)는 전일의 하락을 딛고 급반등에 성공함. AST 스페이스모바일(+8.27%)은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었으며, 플래닛 랩스(+4.47%),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4.57%) 등도 강세 마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주요 현물 ETF에서의 자금 이탈과 함께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 관련주도 약세. 코인베이스 글로벌(-3.46%)이 사흘 연속 하락. 다만 로빈훗 마케츠(+2.89%)는 고객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한다고 밝힌 가운데 상승.

HP(+4.34%)는 마감 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현재 진행 분기,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 수준 이상으로 공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 경쟁사 델 테크놀로지스(+0.08%)도 동반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소폭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이틀째 하락.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져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경계감은 국채금리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미 재무부는 5년물 국채 입찰을 실시. 700억 달러 규모 5년물 입찰 발행 수익률은 4.182%로 결정돼 지난달 발행 수익률에 비해 22.7bp 상승, 지난해 1월 이후 최고를 기록. 발행 전 거래 수익률을 0.1bp 웃도는 것으로 예상 대비 수익률이 소폭 높았음을 의미. 응찰률은 2.34배로 전달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이전 6개월 평균치에 부합해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금리는 1.4bp 하락한 4.033%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1.0bp 하락한 4.480%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하락한 5.010%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장 중 4.987%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낙폭을 줄여 5%선 위에 머무름.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0%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8%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0%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일 제로에서 0.5% 수준으로 소폭 상승.

달러 가치 소폭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타결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제재 해제 등의 핵심 쟁점에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일부 반영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204고 0.062% 상승. 엔화 약세는 지속돼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0.137% 상승한 159.539엔을 기록. 외환 당국 개입 레벨 160엔 선에 한층 가까워짐. 유로-달러 환율은 0.028%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135% 하락해 상대적 달러 가치 강세를 반영함.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01.20원 대비 1원 하락한 1,500.2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2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65원 상승한 1,500.60원을 기록.

WTI 한 달여 만에 90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5% 이상 크게 하락 마감. 이란 국영 방송이 양국이 협의 중인 양해각서(MOU)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며 여기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란은 그 대가로 MOU 체결 후 한 달 안에 군함을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 백악관은 이에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협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반납해도 제재가 풀리는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함. 그럼에도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백악관 내각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기본 입장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자 시장은 비관보다 낙관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

이에 국제유가는 낙폭을 확대.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7월 인도분은 5.31% 급락한 배럴당 94.29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68달러로 5.6% 하락 마감. 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한건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 은 가격도 하락세로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2% 넘게 하락한 온스당 74달러 후반대를 기록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